

1990년대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와 1998년 UMNO 파벌투쟁

이재현*

I. 서론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정치를 무풍지대에 비유하곤 한다. 말레이시아 정치는 1969년 종족폭동 후 급격한 정치적 변동, 정권의 교체, 레짐의 변화 등이 없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레이시아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이후 UMNO)는 1946년 창당된 이후 매 10년마다 큰 파벌투쟁을 겪으며 분당, 집단적 탈당, 제명 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UMNO의 파벌투쟁은 UMNO 뿐 아니라 외부로도 확산되어 말레이시아 정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69년 갈등은 1970년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 등 말레이 종족 편향적인 정책을 낳는데 일조했고, 1987년 갈등은 역사상 처음 UMNO의 분당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1998년 당시 총리 마하티르(Mahathir Mohamad)와 부총리 안와르(Anwar Ibrahim) 사이의 갈등은 레포르마시(Reformasi: Reform)운동을 일으키며 말레이시아 민주화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았다(Case 1999; Singh 2001). 전반적으로 정체된 듯한

*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jbintang@gmail.com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진 것이 UMNO 내부의 정치적 동학이고 그 핵심에는 파벌투쟁이 있으며, 그 정치적 중요성으로 인해 UMNO의 파벌주의는 항상 현실정치와 학문적 분석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평가절하 되어왔던 UMNO의 파벌투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파벌과 파벌투쟁에 관한 이론적 연구, 그리고 특정 국가의 정당 내 파벌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파벌과 파벌투쟁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다시 말하면, 파벌투쟁은 경쟁하는 엘리트들이 쏟아내는 정책적, 이념적 차이에 관한 주장 등과는 달리 실제로는 개인적 차이에 의한 갈등, 권력-이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얼룩진 정치적 병리현상으로 묘사되어 왔다(Zariski 1965; 1978; Stern et. al. 1970; Sartori 1976; Belloni and Beller 1976). 따라서 갈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이념적 차이에 관한 담론과 주장들은 엘리트들의 적나라한 권력투쟁을 포장하고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경향은 UMNO 파벌투쟁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¹⁾

파벌투쟁에 관한 기존의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 파벌투쟁에서 분출했던 엘리트들의 정책적, 이념적 담론들을 분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엘리트들의 담론들이 추악한 정쟁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장들은 정치적 경쟁에서 생존, 즉 최대한의 지지확보를 위해 채용된 담론들이고 수사들이다. 지지의 확보를 위해 채용된 담론들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며, 정치엘

1)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Crouch 1992; Funston 1999; Cheah 2002; Stewart 2003) 등을 볼 것.

리트가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이 담론들은 결정권-투표권-을 쥐어사람들의 요구와 견해를 일정 정도 반영하여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엘리트 수준에서 파벌투쟁에 나타난 담론들은 좁게는 하나의 정당, 넓게는 사회 전반의 요구와 견해, 또는 사회에서 경쟁하는 입장들을 축약해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Aronoff 1978: 113). 더욱이 말레이시아의 경우처럼 UMNO라는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런 절대적 우위로 인해 좁게는 말레이 사회의, 넓게는 말레이시아 사회 전체의 다양한 이익과 주장들이 흘러들어가고 서로 경쟁하는 장이 UMNO 내에 펼쳐진다고 볼 때 이런 관찰은 더욱 현실성 있다. 그러므로 이 담론들의 분석을 통해 사회의 경쟁하는 정책적, 이념적 입장과 갈등 구조를 읽어낼 수 있다.

다종족 사회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태어났으며, 민족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회에서 종족간 경쟁하는 민족주의의 문제는 정치적 이슈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²⁾ 독립 이후 종족문제는 말레이시아 사회와 정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였다. 단편적인 예로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사회와 정치에 대한 연구들은 종족문제의 실체 또는 현실적인 정치적 함의를 인

2) 말레이시아의 종족문제는 1957년까지의 영국 식민지배에서 기인하는데, 현 종족분포(말레이인-약 55%, 화교-약 25%, 인도인-10%미만)는 식민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이주의 결과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종족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자리 잡은 것은 우선 경제적으로 이원화된 식민지 개발 정책에 따라 발생한 종족간 소득, 경제수준의 불균형과 민족주의 갈등 즉, 새로 탄생할 국가의 국가정체성-누구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 때문이다. 경제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Faaland et. al. 1990)을 볼 것. 또 말레이시아에서 민족주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Roff 1967)을 볼 것.

정하고 종족문제를 항상 분석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또는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 하나로 취급해 왔다. 일부 연구들은 엘리트들이 계급갈등을 위장하고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족문제를 이용했고 따라서 종족문제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소수의 목소리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Cham 1975).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종족문제가 사회적 담론의 가장 중심적 자리를 오래 차지해 온 만큼 UMNO의 파벌투쟁 역시 이런 사회적 담론을 반영해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1969년 파벌투쟁과 1987년 파벌투쟁은 말레이 민족주의를 둘러싸고 나타났다(Lee 2005: Ch2 and Ch3). 경쟁하는 분파들 중 도전하는 파벌들은 자신들이 현재의 집권 세력에 비해 보다 말레이 민족주의에 충실하며 따라서 말레이인의 이익을 보다 잘 구현할 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반대로 도전받는 집권 세력은 다종족 사회인 말레이시아의 통합을 위해서는 말레이 민족주의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왔다. 그리고 이런 경쟁하는 엘리트들의 담론은 말레이시아 사회를 지배하던 종족문제, 종족간 갈등 그리고 종족감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경쟁하는 엘리트들은 정치적 지지의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요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자신들의 담론에 많은 적든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1998년 UMNO 파벌투쟁에서 나타난 경쟁하는 엘리트 담론의 성격이 이전 파벌투쟁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듯이 1998년 파벌경쟁에서는 이전의 말레이 민족주의를 둘러싼 담론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정치-경제적 개혁과 현 상황에 대한 옹호, 민주주의 요구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옹호라는 지금까지 파벌투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담론들이다. 본 연구는 1998년 파벌투쟁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탐색해 볼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엘리트 파벌투쟁에 나타나는 경쟁하는 담론들이 일정 부분 사회를 반영한다고 할 때 1998년 엘리트 파벌투쟁에 등장하는 엘리트 담론들이 변화한 것은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UMNO 파벌투쟁에서 민족주의를 둘러싼 담론의 상대적 쇠퇴는 말레이시아 사회를 지금까지 지배해 오던 종족문제라는 이슈가 약해짐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1998년 파벌투쟁에 나타난 두 경쟁하는 담론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서로 상반되는 담론은 1) 그 담론들이 기반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관과 이 서로 다른 공동체관을 바탕으로 구성된 마하티르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안와르의 민주적인 정치, 정치-경제 개혁 요구, 2) 그리고 마하티르가 권위주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동체의 적 재생산 전략과 이에 대한 안와르의 반대 입장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런 엘리트 담론의 변화를 가져온 1990년대 초-중반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II. 상반되는 공동체관과 권위주의-정치적 자유의 대립

1998-99년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대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대결에서 경쟁하는 담론의 성격이 이전의 UMNO 파벌주의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전 두 번의 파벌투쟁, 즉 1969년과 1987년의 파벌투쟁에서는 무엇이 말레이인의 이익인가, 누가 보다 말레이인의 이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인가라는 관점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1998년의 파벌투쟁은 마하티르의 비민주적 통치행태를 비판하는 안와르의 정치개혁, 민주화, 경제개혁 등의 요구와 마하티르의 자기 입장 정당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마하티르의 권위주의적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의 홉스(Hobbes)적 공동체관이다. 마하티르(Mahathir 1985)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집단(공동체)을 조직하고 그 집단 속에서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가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개인은 이런 공동체가 생성된 배경을 잊고 무제한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03년에 이르는 마하티르 재임 전 기간에 걸쳐 그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전체 사회의 권리와 이익이 항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앞선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하티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의 붕괴와 연결시키면서 제한되지 않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주장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 마하티르(Mahathir 1994)는 “개인의 자유는 끝을 모른다. 공동체를 해치면서까지도 개인적 자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대신에 전체 사회의 평화, 안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의 적용과 질서를 강조한다. 결국 마하티르(Mahathir 1995)는 “한 사회의 존립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의해서 정해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마하티르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이런 공동체관 위에 구성되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엘리트들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제시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위로부터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보다 무게가 주어진다.

말레이시아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는 법적 장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장치들은 공동체 전체의 안전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된다. 국가 안보문제에 관한 한 재판없이 무제한 구금을 허용하는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종족문제에 관한 논의를 전면 금하는 선동법(Sedition Act), 정부에 관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공공기밀법(Official Secret Act), 각종 사회단체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사회법(Societies Act),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는 도구로 이용되는 인쇄와 출판물에 관한 법(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대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대학법(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Act) 등이 마하티르 하에서 제정되었거나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개정된 대표적인 법률들이다.³⁾

마하티르는 단순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꾀했다. 그는 일반 대중의 의식을 자신의 비전에 따라 형성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했다. 무자파 테이트(Tate 2000: 11)에 따르면 “티비와 라디오들은 여전히 정부 인사의 의견을 사실(fact)로 보도하고, 애국심을 정부여당과 동일시하며, 정부여당의 입장을 민주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방송하는 세뇌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중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거의 모든 주요 대중매체는 정부나 UMNO 또는 국민전선 내의 정당들이 직,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기사의 내용이나 논조 역시 그 소유주들의 입맛에 맞추어 취사선택되고 재단된다.⁴⁾ 또 필요하다면, 정부

3) 선동법은 종족감정을 악화시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의회의 면책특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이고 자주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동원된다. 또 정부는 대부분의 정부관련 정부를 공공기밀로 분류하여 정부 행위를 감시하려는 세력을 무력화시킨다. 인쇄와 출판물에 관한 법은 모든 신문이 매년 출판허가를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신문사는 정부의 방침에 거스르지 않기 위한 자기검열을 실시하게 된다.

4) UMNO는 독자수 2위의 영자신문인 New Straits Times와 가장 큰 말레이어 신문인 Utusan Malaysia를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에 보다 작은 신문인 Business Times, Malay Mail, Berita Harian을 가지고 있으며 국영방송인 Radio-Televisyen Malaysia(RTM)을 통제하고, 민영방송인 TV3, Metrovision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Gomez 1994: 74-76)을 볼 것. 더불어 국민전선에 속한 MCA(Malaysian Chinese Association)는 가장 큰 영자신문인 Star와 중국어신문

는 대중매체를 관장하는 억압적인 법률들을 통해서 특정한 대중매체에 직접 개입을 하여 그것들을 친정부적으로 전향시키든지 아니면,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이 일반대중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⁵⁾

안와르는 마하티르가 개인을 공동체의 이익에 전적으로 종속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특히 아시아에서 몇몇 국가들이 최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성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다 더 희생되는 아시아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Anwar 1996b):

그들은 경제성장에 너무 도취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낸 아시아적(발전)양식의 성공을 입증하는 증거로 소위 동아시아의 기적이론을 들곤 한다... [아시아적 양식]의 기본 가정은 사회가 개인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그리고 근대 정치의 주요한 특징들은 아시아적 삶의 양식과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자유의 관념, 개인적 자유, 그리고 인권과 같은 문제들은 아시아적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시아의 지배적 견해도 아니고, 아시아의 견해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서 안와르(Anwar 1996c: 28)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라는 담론이 “폭정과 불의에 항거한 아시아의 선조들의 전

Nanyang Siangpao를, MIC(Malaysian Indian Congress)는 타밀어 신문인 Tamil Malar를 소유하고 있다.

5)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언론탄압의 사례로 거론되는 사건들은 모두 마하티르 하에서 일어났는데, 1987년 당 내분을 겪은 마하티르는 그에게 비판적인 두 매체, *Watan*과 *The Star*의 발행을 중지했다. 얼마 후 *The Star*는 친정부적인 신문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 1999년 선거 직후 레포르마시의 열기에 힘입어 독자가 급성장한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rti Islam Se-Malaysia: PAS)의 기관지인 *Harakah*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이 신문이 정간을 당한 적이 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신문인 *Malaysiakini*도 경찰에 의해 수색을 당한 바 있다.

통”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며 “어떤 아시아의 전통도 아시아에서 개인이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와르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아시아적 가치를 이용하여 권위주의를 합리화 시키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안와르(Anwar 1994a)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경제발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아시아적 가치, 특히 유교적 가치가 최근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가 경제성장과 양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시아적 가치는 과거에 훌륭한 문명을 창조했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이 지금 시점에서 아시아의 부흥에 공헌하려면 [개인의] 해방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이관유(Lee Kuan Yew)와 함께 마하티르가 아시아적 가치를 가장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치지도자였으며,⁶⁾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자유화와 분배 등의 사회적 요구를 유보했던 지도자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안와르의 주장이 마하티르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정반대의 주장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하티르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위주의를 무릅쓰고서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안와르에게 있어서 경제적 성장은 그 자체로서 최종목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그 기반위에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표현과 같은 가치들이 건설되는 하나의 기본 조건에 지나지 않았다. 안와르는(Anwar 1996c: 52) “모든 부문에서 자유의 확장이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당연히 바라는 것이고 경제적 부유함은 이런 자유를 확장시키는 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지지하고 이런 개인적 권리와 자유를 구속

6) 마하티르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는 (Lily Zubaidah Rahim 1989)를 볼 것.

하는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와르의 기본적인 인식은 시민사회에 대한 옹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관용, 민주적인 정치 레짐의 필요성 등의 정치적 대안으로 구체화 되었다. 안와르는 마하티르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대비되게 항상 자신의 이미지를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반대파의 관용” 등과 같은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안와르는 “시민사회의 제도들은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고(Anwar 1994b)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유, 개인주의, 인본주의, 관용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되살리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Anwar 1996c: 51).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입장과 민주주의의 실행에 관한 입장에서 안와르는 마하티르와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마하티르는 종족간 화합과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가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해왔다. 마하티르는 서구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개념이 문화적 상대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서구와 다른 아시아적 가치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개념의 실제 적용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Anwar 1996c: 52)는 “일부의 주장처럼 민주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민주주의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주장했다. 안와르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관용”을 넘어서 건전한 반대자의 “육성”까지 언급했다. 1996년의 한 연설에서 그는(Anwar 1996a), “대안적 시각에 대한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억압된 자들, 사회적으로 뒤쳐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III. 공동체의 적 재생산 전략과 반대 담론의 충돌

마하티르의 권위주의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그가 공동체에 대한 적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정당화하며 일반 대중들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공공의 적에 대한 적대감의 재생산은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현재 있는 정치권력을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또 한편으로 이런 담론은 비민주적 정치권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개인을 억압하는 기제가 아닌 민족 집단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마하티르가 언급하는 첫 번째 적은 서구국가들이다. 마하티르의 서구에 대한 독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마하티르에 의하면 서구국가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한다(Mahathir and Ishihara 1995: 75-80).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말레이시아와 같은 약소국을 재식민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마하티르가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아시아 경제위기를 서구의 음모라고 비판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그는 (Mahathir 1997) 1997-98 아시아 경제위기를 “조작된 경제위기”(manipulated economic crisis)로 규정하고 “서구 대자본들은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말레이시아가 서구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할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마하티르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체에 대한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 있는 적들은 말레이시아의 종족적 다원성에서 기인하는 종족갈등의 위협이다.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에 존재하는 국수적 화교민족주의와 급진적 이슬람이 대부분의 온건한, 그리고

종족간의 화합을 믿는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그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화교 야당인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과 말레이-무슬림 중심의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rti Islam Se-Malaysia; Pan Malaysian Islamic Party 또는 PAS)이다.⁷⁾ 이들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이런 정당들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급진성을 과장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온건하게 포장된 자신의 노선에 적극 지지를 표하게 만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두 정당은 물론이고 자신의 노선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나 정당들을 편협한 종족이익을 대변한다든가 또는 서구의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라는 덕목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국가의 이익에 위협을 가져온다고 비난하며 권위주의적으로 탄압했다.

공동체의 적에 대한 불안감을 재생산하여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시키는 마하티르의 정치에 대해서도 안와르는 반대 입장에 있었다. 안와르는 서구 국가들을 말레이시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인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했다. 안와르(Anwar 1996c: 38-40)는 마하티르와 같은 서구관을 서구에 대한 “고질적 오해”(protracted miscomprehension)로 규정하고, “비판을 떠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아시아의 대변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서구에 대한 편견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안와르(Anwar 1996c: 33; 45)는 서구는 “관여해야 할”(engage with)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서구와 동양의 공생관계”(symbiosis

7) 이슬람국가를 추구하는 야당인 PAS는 마하티르 집권 이후 정부가 이슬람 급진세력 또는 신비주의 세력을 검거할 때 마다 항상 이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1984년 므말리 사건(Memali incident), 1994년의 AI-Arqam 탄압, 2000년 AI-Ma'unah 사건 때마다, 정부는 이 집단의 구성원 내지는 지도자가 PAS와 연계된 것으로 발표했고,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는 했다.

between East and West)를 주장했다. 나아가 안와르(Anwar 1996c: 41; 43)는 동양과 서구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짐을 공유”하기 위한 “문명 간 대화”(Inter Civilisation Dialogue)를 제안했었다.

또 마하티르가 종족간 잠재적 갈등을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안와르는 다종족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보다 더 강조했다. 안와르(Anwar 1994b)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국가적 결속과 조화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한 종족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국가인 것 보다는 [현재의 다종족] 상황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한 국가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내부의 차이점을 서로 배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나아가 안와르는 이 다종족의 성격을 말레이시아의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종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Anwar 1994c) 코란을 인용하며 “인간은 종족, 인종, 민족을 만들도록 창조되었는데, 이들 사이에 서로 다른 신체적 특징, 언어, 그리고 사고의 방식은 서로 상대방을 알기(lita'arafu 또는 getting to know each other)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안와르 자신이 이런 “서로 상대방을 알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문명 간 대화(Inter Civilisation Dialogue)의 후원자였으며, 연설이나 글을 쓸 때 코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의 철학자, 서구의 철학자, 아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을 인용하곤 했다.

안와르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레이인을 넘어서 종족에 상관없이 모든 말레이시아인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설정했다는 점도 종족간 마찰의 위험성을 강조한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예를

들면 1969년 마하티르의 『말레이 딜레마』(*Malay Dilemma*)나 1987년 라잘레이의 “부도덕한 정치와 경제에 대항하여”(“*Menentang Kemungkaran Politik dan Ekonomi*”)라는 연설의 청중은 배타적으로 말레이였다. 마하티르의 책과 라잘레이의 연설은 각각 1969년 그리고 1987년 UMNO 파벌투쟁에서 도전자로 참여한 두 사람의 결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안와르의 빠르마땅 싸우 선언(Permatang Pauh Declaration)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모든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Anwar 1998). 이점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말레이 민족주의를 주장하던 1969년의 마하티르나 1987년의 라잘레이의 청중은 당연히 말레이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98년의 안와르가 종족-문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말레이시아인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의 주장이 특정 종족의 민족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반증한다. 안와르의 이런 차별성은 실제로 레포르마시 운동이 다종족적 또는 “아주 뚜렷하게 비종족적”이었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Ooi 2001: 101).

지금까지 1998년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대결에서 잠재적 지지를 끌어내고 설득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양측의 경쟁하는 담론들이 이전의 대결양상인 민족주의와 종족의 이익을 둘러싼 담론과는 다르게 권위주의적 정치의 비판, 정치-경제적 개혁과 민주화 요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1987년까지 민족주의 또는 종족이익을 둘러싸고 제기되던 반대파의 담론이 왜 1990년대 보다 정확하게는 1998년 파벌투쟁에 와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을까?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서 찾아 볼 것이다.

IV. 1990년대 말레이시아 사회:

종족문제의 약화와 정치적 자유 요구의 증가

1990년대 UMNO 파벌투쟁에서 엘리트의 정책적, 이념적 담론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1990년대 초 마하티르가 주도한 말레이시아의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였다. 총리로써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라는 다종족 사회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이런 과제를 위한 그의 이념적, 정책적 시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각 종족간 이익 대립이 약화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의 한 반영이 바로 1998년 UMNO 파벌투쟁에서 나타난 이전과는 다른 엘리트 경쟁 담론들이다.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그리고 좁게는 UMNO 내에서 강력한 흡인력을 가졌던 말레이 종족의 이익을 둘러싼 담론이 1990년대 초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약화되고 그 대신에 새로운 정책적, 이념적 준거점을 찾던 엘리트들은 파벌투쟁에서 종족문제 대신 정치, 경제적 개혁과 보다 민주화 된 정치에 대한 요구를 새로 들고 나온 것이다.

마하티르의 새로운 시도를 가장 잘 요약하는 것은 그가 1991년에 발표한 말레이시아 민족(*Bangsa Malaysia*)이란 개념이다. 마하티르(Mahathir 1991)는 1991년 그의 연설에서 말레이시아 민족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맞고 있는 도전들 중 첫 번째 것은 공동의 운명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결된 말레이시아 민족(*Bangsa Malaysia*)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평화롭고 영토적으로나 종족적으로 통합된 민족이며, 조화와 완벽한 동반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민족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민족이란 개념은 말레이 종족을 초월하여 공동의 운명이란 인식을 가진 모든 말레이시아인을 포함한다. 이전에는 종족 정체성과 충성심이 말레이시아인이라는 정체성에 선행했던 반면 마하티르의 말레이시아 민족은 서로 다른 종족적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종족들이 이제 종족의 정체성보다는 말레이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우선시해야 하고 나아가서 종족적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의 말레이시아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새로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종족들이 통합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핵심인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종족간 경쟁이다. 마하티르는 이 문제를 “경제발전으로 추동”되는 일종의 “미래지향적 낙관론”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런 방법론의 핵심에는 그가 제시한 비전 2020(*Wawasan 2020*)이 있다. 마하티르가 1991년에 한 연설인 “말레이시아: 미래로 가는 길”(Malaysia: The Way Forward)에서 제시된 이 비전을 간단히 요약하면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꾸준히 GDP의 연 7% 성장이란 목표도 세웠다. 1990년대 초-중반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 추세를 보면 연 7%의 성장은 그리 어려운 목표는 아닌 듯 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말레이시아의 GDP는 연 8-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경제적 파이가 넉넉해졌을 때 종족간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사라지고 이는 종족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 개인이 종족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종족의 테두리와 보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번영하는 말레이시아라는 단위가 종족보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말레이시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취할 강력한 유인이 작용한다.

이런 경제적 낙관론을 뒷받침 해 줄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신경제 정책을 대체한 국가발전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NDP)

이다. 신경제정책과 대비하여 국가발전정책은 전자의 종족편향성이 훨씬 완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신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인 말레이인의 30% 기업 지분 소유가 여전히 목표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달성한다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신경제정책이 1990년까지 20년 동안에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을 두었던 것과는 비교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차이이다. 또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에서 신경제정책이 말레이인 우대를 의미하는 종족간의 재분배에 가장 큰 초점을 두었다면 국가발전정책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비말레이인이 지배적인 사적 부문의 역할에 강조를 두었다(Stafford 1997: 567).

경제적 조치들과 함께 비말레이인을 말레이시아 민족이라는 새 정체성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은 문화·교육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비말레이인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교육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71년 이래로 말레이시아의 대학들은 말레이어만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비말레이인들은 이를 큰 문화적 차별로 생각했다.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정책을 완화하여 점차 영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대학이 아닌 각 급 학교들에서도 영어강의를 적극 권장했다. 또 대학입학에서 외국의 대학들이 말레이시아에 자매학교(twinning programme)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말레이인을 위한 대학입학 쿼터제도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던 비말레이인들이 대학교육을 받거나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또 많은 비말레이인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의 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의 명령으로 타밀어학교와 중국어학교가 강제로 말레이어 학교로 전환될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이 폐지되었다(Liak 1996: 226-228).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말레이인들의 불만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었지만, 마하티르는 이를 상쇄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마하티르가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민족은 종족중립적 국가를 전제로 한다. 그래야만 비말레이인들이 말레이시아 민족이란 새 정체성을 취할 유인이 생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레이인들은 종족중립적 국가로부터 이전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말레이인들이 이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취약한 경제력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다른 종족과 동등한 경제적 자신감-잠재적이나마-을 가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마하티르는 새로 등장하는 말레이 중산층에 착안했다. 1971년 신경제정책이 시작된 이후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1980년대부터 말레이 중산층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1990년대에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했다(Khoo 1992; Shamsul 1998). 마하티르는 비록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하기는 했지만 새로 등장하는 신말레이(*Melayu Baru*; New Malays)들이 이제 다른 종족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경쟁을 해도 될 만큼 새로운 지식과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마하티르(Mahathir 1993)는 1993년 UMNO 전당대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는 말레이 또는 부미뿌트라 출신의 정부 부서장, 과학자, 회계사, 핵과학자, 외과의사, 약사, 항공기술자, 은행가 그리고 유명한 기업가들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수십억 링깃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으며 매우 복잡한 합병, 인수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에서 유명한 큰 기업들을 인수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다... 이는 말레이와 부미뿌트라가 달성한 성취 중의 일부이다. 이런 성공들이 말레이나 부미뿌트라도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⁸⁾

8) 실제로 1995년의 통계를 보면 말레이인 최고경영자를 가진 기업이 쿠알라룸푸르 주식시장에 상장된 200여개 기업과 845개에 달하는 자회사 중에서 약 30%에 달했고, 말레이인 전문직 종사자도 1990년의 21.4%에서 1995년에는 33%로 늘어났다.

물론 이런 마하티르의 시도들이 성공했는가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단편적인 예들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말레이어 대신 영어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은 1970년대에는 말레이 사회에서 아주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이런 반발에 적극 참여하고 동조하는 말레이인들은 거의 없었다(Jayasankaran 1995: 24). 오히려 한 통계에 의하면 1995년에 약 3만5천명에 달하는 말레이인 학생들이 중국어로 수업하는 화교학교에 다니고 있었다(Hiebert 1995: 22).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 초-중반 종족구분을 막론하고 이제는 종족감정 보다는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이는 더 나아가 종족을 넘어선 하나의 말레이시아라는 민족국가 공동체를 상상하는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이 시기를 전후해서 말레이시아 사회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압둘 라만 엠봉(Abdul Rahman Embong 2001: 62)은 이 시기를 “발전과 성장에 대한 강조와 종족성의 평가절하”라는 특징으로 묘사한다. 할림 살레(Halim Salleh 1999: 190)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제는 “말레이시아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들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놀랐고 이제 [이 자긍심은] 새로운 단결의 요소가 되었다”고 관찰했으며, 쿠부텍(Khoo 2003: 22)은 보다 직접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로 상상하고, 그리고 하나의 [말레이시아라는] 민족공동체라는 감정이 주는 확실한 유익함을 체감하면서 꽤나 고무되었다”고까지 묘사하고 있다.

같은 기간 말레이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주식도 19.3%에서 20.5%로 늘어났다. 또 말레이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990년만 해도 33.4%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말레이인(17.5%)보다 많았으나 1995년에는 그 비율이 25%와 21.4%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진 1995년 총선은 마하티르에게 그때 까지 UMNO가 이긴 어떤 선거보다도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UMNO가 이끄는 국민전선은 총 192석의 연방의회 의석의 84.3%에 달하는 162석을 차지했고, 주의회 의석(총 394석) 중 338석을 차지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국민전선 안에서도 UMNO는 71석에 불과하던 의석을 89석까지 늘렸다. UMNO는 PAS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인이 집중된 4개 주(꼴란판, 빠를리스, 뜨렝가누, 빠항)에서도 기존의 54%의 지지율을 59%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Party)은 의석수가 2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었고, 말레이인이 중심이 된 야당인 스망앗 46('Semangat 46': 46년의 정신)은 기존의 8석에서 6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야당에서는 PAS만 7석의 의석수를 그대로 지켰다.

이런 종족감정의 희석과 함께 경제성장, 특히 말레이인의 경제력 향상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사회가 점차 분화되고 다양화 되면서 정치적 자유, 권위주의적 정치에 대한 의문이 나타났다. 클라이브 케슬러(Kessler 2001: 25)의 관찰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특히 1981년 마하티르 집권 이후 말레이인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들의 목적은 말레이 사회를 모든 분야 즉,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변화, 분화시키는 것이었고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분화와 다양화가 정치적으로 표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바람이었다"고 한다. 즉, 이전에는 종족감정이란 단일한 담론으로 통제가 가능하던 말레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분화되고 다양화함에 따라서 그 속에 서로 다른 많은 견해가 표출되기 시작하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정치를 정당화 시켜온 종족갈등의 담론을 넘어서 권위주의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는 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변화가 UMNO 파벌투쟁의 담론에서 종족문제가

약화된 자리를 채운 정치적 자유, 개혁, 민주화 요구의 원천이다.

2000년 프란시스 로(Loh 2000: 84)는 말레이시아에서 “대중소비 사회의 실현은 사람들을 더욱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관찰했다. 하지만 이런 “개인주의적”이라는 특징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따로 소비하는 개인주의를 의미할 뿐, “개인의 고유한 자율성, 자유, 정체성의 표현을 의미하는 개인주의”라는 모습은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레포르마시에서 나타난 자유화, 민주화, 정치-경제 개혁의 요구는 1990년대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가 결코 정치적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는 특징을 결여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록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 즉각적인 효과, 즉 정권교체나 전면적 민주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1998년 UMNO 파벌갈등에서 시작된 레포르마시 운동에서 보듯이 분명히 말레이시아 사회의 새로운 요소로 성장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V. 결 론

이 연구는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여겨졌던 파벌갈등에 나타난 엘리트들의 정책 또는 이데올로기적 담론들이 한 사회의 복잡한 담론의 지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1998년 UMNO 파벌 갈등에 나타난 경쟁하는 담론들, 그리고 그 담론들에 영향을 준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를 관찰했다. 오랫동안 말레이시아 사회를 규정해오던 종족간 갈등이라는 변수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들이 흘러들어가는 UMNO라는 지배적 정당의 파벌갈등 담론을 형성해왔다. 1969년과 1987년의 파벌 갈등에서 보듯이, 경쟁하는 담론들은 도전 세력의 보다 강력한 말레이 민족주의와 집권세력의 말

레이 민족주의와 다종족 사회의 통합이라는 두가지 요구 사이의 딜레마라는 형태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8년의 파벌갈등에 와서는 그 담론의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전의 종족문제를 둘러싼 담론들은 거의 사라진 반면에, 권위주의적 정치의 현상유지,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경제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담론이 그 빈 공간을 채웠다. 이 연구에서는 파벌갈등에 나타나는 경쟁하는 담론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이런 변화를 말레이시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축약해 보여준다는 주장을 폈다. 1990년대 들어서 마하티르의 새로운 시도 즉, 모든 종족들을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묶어내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종족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담론이 이전에 비해 호소력을 잃은 결과로 경쟁하는 파벌의 담론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설명을 했다. 그리고 종족감정의 호소력 약화라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말레이시아 사회의 다원화, 분화였고, 그 한 측면이 이전에 종족문제를 발미삼아 정당화 되었던 권위주의적 정치에 대한 의문과, 보다 민주적인 정치에 대한 요구였다. 1990년대 이런 말레이시아 사회의 변화가 1998년 UMNO 파벌 갈등의 새로운 담론을 가져온 근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물론 오랫동안 말레이시아 사회를 지배해 온 종족간 갈등과 경쟁이라는 변수가 10년 혹은 20년의 사회 변화로 완전히 사라질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1998년 UMNO 파벌 갈등을 가지고 이런 전면적인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종족간 대결과 갈등이라는 기존 말레이시아 사회를 지배해 오던 변수가 이전 보다 그 호소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다. UMNO 파벌갈등에 관여하는 엘리트들이 민족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이 변수가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호소력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족문제의 약화와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한 새로운 움직임은 1998년 UMNO 파벌 투쟁에 등장했던 담론의 한 축인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요구, 보다 민주적인 정치의 요구, 정치-경제 개혁의 요구다. 말레이시아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힘입어 보다 강해진 이런 요구는 1998년 UMNO 파벌투쟁에 이은 레포르마시 운동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다. 물론 레포르마시 운동이 일부의 예측처럼 정권 교체와 전면적인 정치-경제개혁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론들이 이전 보다 크게 성장하여 UMNO 파벌투쟁의 핵심적 담론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bdul Rahman Embong. 2001. "The Culture and Practice of Pluralism in Postcolonial Malaysia." in R. W. Hefner(e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Pluralism and Citizenship in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pp. 59-85.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Anwar, I. 1994a. Speech at "Democracy and the Challenges to Civil Society" conference. Bangkok. September 20.
- Anwar, I. 1994b. Speech at the Kuala Lumpur Forum on Future Generations: "Emerging Thoughts and Philosophy of an Asian Century". Kuala Lumpur. August 4.
- Anwar, I. 1994c. Speech titled "The Need for Civilizational Dialogue". Washington D.C. October 6.

- Anwar, I. 1996a. Speech at the 42nd Conference of the Commonwealth Parliamentary Association. Kuala Lumpur. August 19.
- Anwar, I. 1996b. Speech at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ondon. July 14.
- Anwar, I. 1996c. *The Asian Renaissance*.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 Anwar, I. 1998. Permatang Pauh Declaration. Penang, Malaysia. September 12.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Congress/3832/frame/Declare.htm>(검색일: 2001.10.05)
- Aronoff, Myron J. 1978. "Fission and Fusion: The Politics of Factionalism in the Israel Labor Parties." in Dennis C. Beller and Frank P. Belloni(eds.). *Faction Politics*. Santa Barbara: ABC-Clio.
- Belloni, Frank P. and Dennis C. Beller. 1976. "The Study of Party Factions as Competitive Political Organization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7(4): 531-549.
- Case, W. 1999. "Politics Beyond Anwar: What's New."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1): 1-19.
- Cham, B. N. 1975. "Class and Communal Conflict in Malay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5(4): 446-461.
- Cheah, B. K. 2002. *Malaysia: The Making of a Natio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rouch, H. 1992. "Authoritarian Trends. The UMNO Split and the Limits to State Power." in J. S. Kahn & K. W. Loh(eds.). *Fragmented Vision: Culture and Politics in*

- Contemporary Malaysia*. pp. 21-43. Sydney: Asi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 in association with Allen & Unwin.
- Faaland, J. J. R. Parkinson, & R. Saniman. 1990. *Growth and Ethnic Inequality: Malaysia's New Economic Policy*.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Funston, J. 1999. "Malaysia: A fateful September." in D. Singh(ed.). *Southeast Asian Affairs 1999*. pp. 165-18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Gomez, E. T. 1994. *Political Business: Corporate involvement of Malaysian political parties*. Townsville: Centr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James Cook University of North Queensland.
- Halim Salleh, 1999.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Social Stability in Malaysia." in D. Singh(ed.), *Southeast Asian Affairs 1999*. pp. 185-203.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iebert, M. 1995. "Golden Tongu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20. p. 22.
- Jayasankaran, S. 1995. "Language Proble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20. p. 24..
- Kessler, C. S. 2001. "Malaysia Since 1999: Dr Mahathir Survives his Crises." *Dialogue*. 20(3) pp. 22-28.
- Khoo, B. T. 2003. *Beyond Mahathir: Malaysian Politics and Its Discontents*. London: Zed Books.
- Khoo, K. J. 1992. "The Grand Vision: Mahathir and Modernisation." in J. S. Kahn & K. W. Loh(eds.).

- Fragmented Vision: Culture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Malaysia*. pp. 44-76. Sydney: Asi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ia in association with Allen & Unwin.
- Lee, J. H. 2005. "UMNO Factionalism and The Politics of Malaysian National Identity." Ph. D. Dissertation. Perth: Murdoch University.
- Liak, T. K. 1996. "Malaysia: Mahathir's last hurrah?" in D. Singh & T. K. Liak(eds.), *Southeast Asian Affairs 1996*. pp. 217-237.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Lily Zubaidah Rahim. 1998 "In search of the Asian Way: cultural nationalism in Singapore and Malaysia." *Commonwealth & Comparative Politics* 36(3): 54-73.
- Loh, K. W. F. 2000. "State-Societal Relations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the Case of Malaysia, 1970-97." In R. B. Kleinberg & J. A. Clark(eds.). *Economic Liber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Civil Society in the Developing World*. pp. 65-87. London: Macmillan.
- Mahathir, M. & S. Ishihara. 1995. *The Voice of Asia: Two Leaders Discuss the Coming Century*. (F. Baldwin, Trans.).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 Mahathir, M. 1970. *The Malay Dilemma*. Singapore: Asia Pacific Publication.
- Mahathir, M. 1985. Speech at The World Press Convention. Kuala Lumpur. September 18.
- Mahathir, M. 1991. "Malaysia: The Way Forward (Mahathir's speech reprinted in the New Straits Times)." *The New*

- Straits Times*. March 2. pp. 10-11.
- Mahathir, M. 1993. Speech at 1993 UMNO General Assembly. Kuala Lumpur. November 4.
- Mahathir, M. 1994. Speech at The First East Asian Young Leaders Congress, titled "East Asian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Kuala Lumpur. August 5.
- Mahathir, M. 1997. Speech at the World Bank meeting. Hong Kong. September 20.
- Muzaffar Tate. 2000. "The Last Chance?" *Aliran Monthly*. 20(2). pp. 11-12.
- Ooi, K. B. 2001. "New Crises and Old Problems in Malaysia." in K. L. Ho & J. Chin(eds.). *Mahathir's Administration: Performance and Crisis in Governance*. pp. 100-119. Singapore: Times Books International.
- Roff, W. 1967. *The Origins of Malay National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msul, A. B. 1998. "Bureaucratic Management of Identity in a Modern State: 'Malayness' in Postwar Malaysia." in D. C. Gladney(ed.). *Making Majorities*. pp. 135-15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ingh, H. 2001. "Democratization or Oligarchic Restructuring? The Politics of Reform in Malaysia." *Government and Opposition*. 35(4): 520-546.
- Stafford, D. G. S. D. 1997. "Malaysia's New Economic Policy and the Global Economy: The Evolution of Ethnic

- Accommodation." *The Pacific Review*. 10(4): 556-580.
- Stern, Alan J., Sidney Tarrow, and Mary Frase Williams. 1970-71. "Factions and Opinion Groups in European Mass Parties: some Evidence from a Study of Italian Socialist Activists." *Comparative Politics*. 3(6): 529-559.
- Stewart, I. 2003. *The Mahathir Legacy: A Nation Divided, A Region At Risk*. Crows Nest, Australia: Allen & Unwin.
- Zariski, Raphael. 1965. "Intra-Party Conflict in a Dominant Party." *The Journal of Politics*. 27(1): 3-34.
- Zariski, Raphael. 1978. "Party Fac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Some Empirical Findings." in Dennis C. Beller and Frank P. Belloni(eds.). *Faction Politics*. pp. 19-38. Santa Barbara: ABC-Clio.

Abstract

Changing Malaysian Society in 1990s and UMNO Factional Dispute in 1998: Declining Ethnic issue and Rising Liberal Politics

Lee, Jae-Hyon

This research, under an assumption that competing elite discourses in factional dispute reflect the complex web of discourses in the whole society, attempted to relate UMNO factional dispute in 1998 to the changes occurred in Malaysian society in the 1990s. For a long time, ethnic issue has shaped the competing elite discourses in UMNO factional disputes as we can see in the disputes in 1969 and 1987. In 1998 dispute, however, the contents of elite discourses took a different shape - a competition between status quo of authoritarian politics and a demand of political liberalization, sweeping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This new discourses mirror the changes in Malaysian society in the early 1990s. In the 1990s, Mahathir's attempt to build a new national identity, Bangsa Malaysia, inclusive of all ethnic groups was to a certain degree successful. Consequently, the ethnic issue lost its traditional appeal, although it was not completely forgotten. A new discourse i.e. questions on authoritarian politics, demand of more democratic

and liberal politics, filled the vacuum left by the ethnic issue. These new elements were the product of diversification of Malaysian society following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 new contents of elite discourses in 1998 factional dispute echoed the changes in the Malaysian society in the 1990s.

Key words : Malaysia,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UMNO),
factionalism, nationalism, reformasi, Mahathir
Mohamad, Anwar Ibrahim